

고려시대 자기인식의 형성과 문명의식(文明意識)의 변화

한 정 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려왕조에서의 자기인식 내용과 고려에 대해 칭해진 동문 및 소중화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문명의식의 내용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 등을 찾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의 자기인식과 문명의식은 태조의 천명의식, 고구려계승의식, 삼한일통의식 등에서 출발한다. 고려는 이를 팔관회를 통해 상징화하는 한편 유교를 토대로 한 화풍을 반영하면서 동방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후 유교 문명의 수용을 토대로 자기인식이라 할 고려중심 문명의식과 결합하였다. 유·불·도 삼교와 토속 신앙, 용손의식 등이 반영되었고,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천하를 노래하는 팔관회가 이를 상징하였다. 고려 중심 화이질서와 문명의식이 성립한 것이었다. 고려는 예약문물이 중화와 같은 범주 혹은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동문·소중화라 칭해졌다. 여기에는 송이 다원적 국제질서 속 고려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한 면이 있었다. 고려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서 스스로 이룬 문물을 자신하였다. 팔관회의 개최는 고려 중심 화이질서와 문명의식 속에서의 해동천하라는 문명의식 형성을 뜻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원 간섭기 원 중심의 형세론적 화이의식을 수용하여 원 중심 천하동문을 받아들였다. 또 명이 들어서자 고려는 이에 대한 사대를 결정하면서 종족적 공간적 유교적 정통을 인정하고 명 중심의 화이의식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고려 중심 화이질서와 문명의식의 해소를 뜻하는 것이었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종적인 것으로 명과 성리학 중심의 용하변이를 추구한 것이 된다. 이는 시대 상황에 따른 고려 중심의 자기인식과 문명의식의 변질이라 여겨진다. 고려의 해동천하 문명의식의 상징이었던 팔관회의 혁파와 명 중심 소중화적 동인의식(東人意識)을 새롭게 만든 것은 이를 뜻하였다.

[주제어] 천명의식, 고구려계승의식, 삼한일통의식, 동문, 소중화, 군자, 해동천하, 팔관회, 용하변이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고려 중심 해동천하 문명의식의 전환과 의미 |
| II. 태조의 자기인식과 문명의식 | V. 맺음말 |
| III. 동문(同文)과 소중화(小中華) | |

* 건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konhan77@konkuk.ac.kr

I. 머리말

역사 무대에서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체제와 그 바탕이 되는 의식을 어떻게 체계화하였는가 등은 문명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문명의식의 성립과 변화는 역사를 살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면과 관련하여 고려왕조의 문명의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¹⁾

고려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서는 이에 대해 자기인식 내용과 의미를 찾는 한편 이를 천하의식 및 문명의식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려가 표현한 자기인식과 문명의식에 대한 검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고구려계승의식이나 삼한일통의식 류의 역사정통성 및 계승의식 이해,²⁾ 황제-제후의 국제(國制) 및 이중체제론,³⁾ ‘화(華)’와 이(夷)로서의 이중적 자아인식,⁴⁾ 자기의식의 심화와 문명의식에 따른 해동천하의식·동인의식(東人意識)의 제안⁵⁾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원사회

- 1) 문명(文明)의 표현은 현대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려시대적 관점을 감안하여 칭하고자 한다. 본래 이는 『서경』 순전(舜典)에서 순의 덕에 대해 ‘濬哲文明’이라 한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문명은 세조인 용건의 자(字)나 3대 정종에 대해 시호를 ‘文明’이라 한 것 등에서 보듯이 덕망을 칭하는 면을 가지고도 있었다. 그렇지만 무신정권기에 살았던 이규보가 ‘端邁文明之代’라 하여 자신의 시대를 칭한 것(『동문선』 권37, 表箋 謝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表), 진화(陳渾)가 ‘坐待文明旦’이라 한 것(『補閑集』 권상, 文宗大康七年辛酉), 윤선좌(尹宣佐; 1265~1343)가 진(晉) 고조가 학교를 개설하고 도의를 천명하여 국조를 새롭게 한 데 대해 칭하길 ‘廓著文明之化’라 한 것(『동문선』 권3, 賦 高祖開設學校廣闡道義惟新寶曆賦), 윤소종(尹紹宗; 1345~1393)이 동지에 대한 칠언고시에서 고려의 문물에 대해 ‘文明煥興三代肩’이라 한 것(『동문선』 권8, 七言古詩 冬至), 이달충(李達衷; 1309~1384)이 ‘文明日久略戎事’라 한 것(『동문선』 권16, 七言律詩 咸州樓上作) 등을 보면 문명은 의관·예악·문물·제도·전장 등을 통칭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문명의식’이라는 표현을 쓰하고자 하였다.
- 2) 河炫綱, 「高麗時代の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研究』 8, 1975; 朴漢高, 「高麗 王室의 起源 -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關聯하여」, 『史叢』 21·22, 1977; 金光洙,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1988;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윤경진,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윤경진, 「고려의 三韓-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2016;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2017;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統意識과 ‘高麗三京’ -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채웅석, 「고려 ‘三韓-統’의 다원성과 통합성」,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 3) 金基德, 「고려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국사관논총』 78, 1997; 박재우,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韓國史學報』 20, 2005;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하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노명호, 「<고려사>의 ‘僭擬之事’와 ‘大赦天下’의 ‘以實直書’ - 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韓國史論』 60, 2014(『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 해석 방향의 정립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사, 2019); 崔鍾奭,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2015; 허인욱, 「군주호(君主號)로 본 고려 전기의 대외인식」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9.
- 4) 도현철, 「원명교체가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하우봉,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나타난 自我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2003;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2003; 박대재,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2016; 최봉준, 「고려전기 역사계승의식과 이중적 자아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최중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토대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2017; 김윤정, 「고려의 문화의식과 토풍(土風)·화풍(華風)의 관계」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9.
- 5) 李佑成, 「高麗 詩人에 있어서의 文明意識의 형성」, 『梨花史學研究』 3, 1968(『韓國의 歷史像』, 1982, 創作과批評社 소수); 林榮澤, 「고려 말 문인지식층(文人知識層)의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1996, 一潮閣;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하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秋明燁,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2005; 鄭瑢謨, 「고려 중기 東人意識의 형성과 詩文選集의 편찬」, 『東洋漢文學研究』 36, 2013; 한정수, 「고려전기 異邦人·歸化人의 입국과 해동천하」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94, 2018;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統意識과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려 당대에 형성된 다원적 국제관계와 다원적 천하, 문화의 다원성 등을 살펴 고려가 가진 자기인식의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⁶⁾

특히 이 가운데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종(宗)·폐하·태후·태자·절일·제(制)·조(詔)·황제·천자·천하 등 참유(僭踰) 혹은 참의(僭擬)한 사항 등에 대해 직서 및 개서 혹은 제외함으로써 황제제도의 전모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⁷⁾ 이는 최해가 『졸고천백』에서 원 대덕(大德; 1297~1307) 연간에 이르러서야 성상(聖上)·황상(皇上)·집(朕)·여일인(予一人)·조(詔)·제(制)·대사천하(大赦天下) 등 크게 참의한 일 등이 이정(釐正)되었다⁸⁾고 한 기록을 고려하면 원종 이전의 고려 천하 혹은 그에 기반한 고려의 문물예악제도인 문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를 토대로 하면서 먼저 자기인식 배경과 과정을 주목하여 문명의식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고려의 건국과 통일을 기점으로 왕실의 권위와 국가체제를 세우려는 목적이 자기인식에 반영되었음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문명의식의 형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어서는 고려가 자기인식을 구체화해 가는 가운데 가졌을 문명의식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명은 타자가 본 혹은 다른 체제와의 비교이해를 토대로 보다 진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중국과의 교류와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동문(同文)’이나 ‘소중화(小中華)’ 등의 표현과 그에 따른 자기인식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높은 문명의식을 상징화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동문 및 소중화의 이해 등이 고려가 형성해간 문명의식의 내재화와 전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려가 인식한 고려 중심 화이질서와 문명의식을 해동천하 문명의식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주목하여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태조의 자기인식과 문명의식

본 장에서는 태조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자기인식 내용을 추출하고 종합하고자 한다. 이어서는 태조가 이루고자 한 문명의식의 방향과 그 상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특히 태조대 팔관회와 훈요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궁예 축출 및 태조 즉위 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기록을 보면, 유덕자(有德者)와 천명(天命), 역성혁명

⁶⁾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 2018.

⁶⁾ 채용석 편저,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해안, 2019.

⁷⁾ 노명호, 「『고려사』의 ‘참의지사(僭擬之事)’와 ‘대사천하(大赦天下)’의 ‘이실직서(以實直書)’: 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2014(『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해석 방향의 정립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사, 2019 재수록).

⁸⁾ 『拙叢千百』 권2, 東人四六序, “然陪臣私謂王曰聖上曰皇上上引堯舜下譬漢唐而王或自稱朕予一人命令曰詔制肆有境內曰大赦天下署置官屬皆倣天朝若此類大涉譖論……大德間朝廷遣平章闕里吉思釐正然後渙然一革無敢有蹈襲之者”.

(易姓革命) 등에 대한 이해가 보인다. 우선 태조의 거의는 홍유 등과 부인 유씨가 태조에게 천명(天命)이 돌아와 있다 한데서 비롯되었다.⁹⁾ 즉위 조서에서는 궁예의 실정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을 위한 유신(維新)의 방향에 대해 천명하였다.¹⁰⁾ 이들 기록의 바탕에는 유덕자 즉위가 반영된 천명의식이라는 대의명분이 보인다. 그리고 이 천명의식은 궁예의 연호 정개(政開)를 없애고 ‘천수(天授)’라 한 개원 조치에서도 상징화되었다.

다음으로는 국호를 통한 역사계승의식과 영토에 대한 이해가 보인다. 태조는 궁예가 정한 바 있었던 ‘고려’의 국호를 다시 정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지배 영토에 대해 ‘사군(四郡)’ 및 해내(海內)의 표현을 썼다.¹¹⁾ 즉위 초의 상황에서는 단지 ‘해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하였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고려 영토를 해내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사군의 표현은 문자 그대로 사방의 균현을 뜻할 수 있어서 모호하며,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구려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한사군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¹²⁾ 때문에 이 표현은 구체적인 영토의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태조는 역사계승을 반영한 영토의식을 찾고자 했다. 태조가 찾은 해결방향은 일차적으로는 신라에서 찾은 삼한일통론이었다.

태조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삼한일통의식이 표방되어진 데 대해 주목하였다.¹³⁾ 태조는 초기의 경우 자신이 속한 천하를 삼한이라 인식하면서도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존왕론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는 태조 10년 9월 있었던 신라에 대한 견훤의 침공에 대해 지존(至尊)에 대한 존주(尊周)의 의리를 견훤이 짓밟은 것이라 지적한 데¹⁴⁾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태조의 신라중심 존왕론에 입각한 삼한사회 인식은 태조 14년 2월 신해일로부터 5월 계미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신라 금성 방문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사료에는 태조가 무엇을 하였는가의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태조 2년 3월 도성 안에 법왕사 등 10대사찰을 지은 것이나,¹⁵⁾ 태조 3년에 신라사신 김율에게 장육존상과 황룡사 구층탑 및 성제대 등 신라삼보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점¹⁶⁾ 등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태조는 금성 방문 시 신라를 상징하는 사찰과 소위 성소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 불국

9)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10)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병진 및 정사.

11)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정사.

12) 당 태종이 영류왕 24년 고구려의 접대를 받고 돌아온 직방낭중 진대덕에게 “高句麗本四郡地耳”라 한 대목이 확인된다(『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4년). 또한 태조가 직접 지은 개태사 화엄법회소의 글 속에 “四郡封陲 三韓疆境”이라 하여 사군과 삼한을 따로 구분하고 있음이 보인다(『동인지문사록』 권8, 佛疏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그렇지만 이 화엄법회소의 글로 본다면 사군과 삼한을 아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영토 및 통일의식이 드러난 것이라 여겨진다.

13)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1982; 노태돈, 「삼한일통의식의 형성 시기에 대한 고찰 - 일문서기 ‘삼한’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16, 2016;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史林』 45, 2013;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계 정비와 金庾信 追封 - 三韓 - 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 『史林』 52, 2015;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 三韓 - 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2014; 윤경진, 「신라 景文王의 통합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개건 - 9세기 三韓 - 統意識의 확립과 관련하여 -」, 『韓國史學報』 61, 2015; 윤경진, 「三韓 - 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75, 2016.

14) 『고려사』 권1, 태조 11년 정월.

15) 『고려사』 권1, 태조 2년 3월.

16) 『고려사』 권2, 태조 20년 5월 계축. 태조가 신라삼보에 대해 이해를 보인 것은 경명왕 4년 즉 태조 3년 10월 아찬 김율이 고려에 사신으로 온 때였다. 이어 경순왕 김부는 태조 20년 5월 계축에 鎬金安玉排方腰帶인 성제대를 바쳤고 태조는 이를 물장성에 보관하게 하였다.

토로서의 신라와 금성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생각된다. 예컨대 대표적으로는 황룡사를 예방하여 장육존상과 구층탑을 찾아보았을 것이며, 동시에 사천왕사 등을 포함한 성전사원, 그 외 분황사나 불국사, 승복사 등 사찰과 신라 금성의 성소에 해당하는 낭산이나 선도산, 남산, 토함산, 왕릉 등 역시도 마찬가지로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태조가 9층탑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보였던 것이 주목된다.¹⁷⁾ 태조는 태조 14년 금성 방문 후 최응이 죽기 전인 15년 11월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최응에게 발원소를 짓도록 하였다. 발원소에는 신라가 구층탑을 조성해 일통의 위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개경에 7층탑, 서경에 9층탑을 세워 삼한을 합해 일가를 이루려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¹⁸⁾ 옛날 신라가 구층탑을 조성하여 ‘一統之業’을 이루었다고 한 것은 황룡사구층목탑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개경 7층탑, 서경 9층탑을 지어 ‘合三韓爲一家’를 이루겠다는 기원을 하였던 것이다. 이어 태조 15년 5월 갑신일에 군신에게 내린 유지(諭旨)에서는 “서경을 수리하고 사민(徙民)한 것은 지력을 빌려 삼한을 평정하고 장차 그곳에 도읍하려 한 때문이다.”¹⁹⁾라 하였다. 태조는 이로써 세가 기록 상 처음으로 ‘平定三韓’을 언급하였으며, 그것도 서경의 지력을 빌어서라 표현하였다.

태조의 이 같은 자신감은 태조 16년 후당으로부터의 책봉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때 책봉조서에는 “차지한 영토를 평양이라 칭하고”, “오족(五族)의 무리를 통합하고 삼한(三韓)의 비옥한 땅을 지배해 나라를 안정시키기에 힘썼으며”라는 수사가 들어가 있었다. 또 삼군의 장리(將吏)에게 내린 조서에는 “삼한의 낙토를 다스리면서”라 하였다.²⁰⁾ 신라가 가진 역사와 문명의식을 경험하면서 태조는 후당에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내세우고 영토를 평양 혹은 삼한낙토로 언급하였을 것이다. 책봉을 청하면서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고려의 역사계승 내용 등을 후당에 문서자료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조의 고구려계승의식이나 신라 금성 방문 후 보다 의지를 다지게 된 일통삼한 혹은 평정삼한의 삼한일통의식²¹⁾은 고려왕조가 나아가야 할 자기인식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태조 18년 6월 견훤의 입조²²⁾와 10월 입술일에 있었던 신라왕 김부의 입조 요청²³⁾ 승낙, 이듬해 6월 견훤의 ‘誅賊子’ 명분에 따른 후백제 정벌 수용 등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해 9월 일리천에서의 대회전으로 일통삼한을 완성한 태조는 위봉루(威鳳樓)에 나아가 문무백관 및 백성의 조하를 받았다.²⁴⁾ 이어 태조 19년 개태사가 창건될 때

17) 즉위 전인 30세 때에 태조는 꿈 속에서 해중에 있는 구층금탑에 스스로 오른 바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9층탑에 대한 관심이 꿈의 전후 분명이 있었다 여겨진다.

18) 『고려사』 권92, 열전5 최응, “太祖謂凝曰 昔新羅造九層塔 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西京建九層塔 冀借玄功 除群醜 合三韓爲一家 卿爲我作發願疏 凝遂製進”

19)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5년 5월 갑신.

2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6년 3월 신사.

21) 이 같은 삼한일통의식은 후에 「고려세계」를 통해 태조 선대의 활동을 서술하는 중에서 부회되고 있다. 신라 감간 팔원이 강충에게 풍수를 말하면서 ‘統合三韓者’를 언급한 것이다. 용건 즉 세조가 ‘并吞三韓之志’을 갖고 있었다 한 것, 몽부인에 대하여 ‘三韓之母’로서 성을 ‘韓氏’라 한 것, 도선이 태조에 대해 ‘統合三韓之主’ 등을 칭한 것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평정삼한, 일통삼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 달성 이후 완성되는 삼한일통의식은 고려의 자존의식을 강렬하게 이끌었을 것이다.

22)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6월.

2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10월.

2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9년 9월, “王至自百濟 御威鳳樓 受文武百官及百姓朝賀”,

친제한 개태사화엄법회소에는 마침내 사군과 삼한을 석권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기에 이르렀다.²⁵⁾

그런데 삼한을 일통한 태조 19년의 기록에 조하를 받았다는 서술만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준다. 이를테면 태조를 중심으로 한 성대한 삼한일통 축하의례가 열렸을 터인데 그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서이다.²⁶⁾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축하의례로서 팔관회를 주목하였다. 팔관회 개최는 태조 원년 11월부터 나오고 있다.²⁷⁾ 그런데 같은 때의 관련 기사를 신고 있는 『고려사절요』의 태조 원년 11월 기사를 보면 차이가 있다. 즉, 대업을 이루었으니 불교에 따라 나라를 안집시킬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정에 신라고사에 따라 율등과 향등을 설치하고 연화대와 같은 채봉을 만들어 백희가무와 사선악부 등을 베풀었다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백관이 포홀(袍笏)로 예를 행하니 왕이 이를 보고 부처를 공양하고 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 하였음이 확인된다.²⁸⁾

여기서의 대업을 획득(獲守)하였으니 불교에 의지해서 나라를 안집하겠다는 한 대목이나 신라고사에 따른 백희가무와 사선악부가 동원된 성대함 등을 본다면 이는 태조 즉위 축하의례보다는 일통삼한을 이룬 업적과 그에 대한 조하 및 축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때문에 『고려사절요』의 태조 원년 11월 기사 상당부분은 신라고사를 활용해 성대한 축하 축제를 열어 ‘공불락신’의 모임을 가진 것이 된다. 결국 이때의 팔관회 기사는 태조에 대한 조하의례이자 제불과 신에 대한 감사의 통합의례가 갖추어진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²⁹⁾

태조 말의 구체적 사례는 찾을 수 없지만 훈요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본다면 팔관회는 ‘천령·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군신동락(君臣同樂)의 모임으로 바뀌었다.³⁰⁾ 이를 본다면 ‘공불락신’이라 지칭했던 단계의 팔관회에서 공불은 사불(事佛)로서 연등회로 정리되고 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은 팔관회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천과 산악 및 용신숭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에 신라의 사선악부를 활용한 화려함과 여러 신을 모시는 제의적인 면, 시기적으로는 11월로 동지라는 새로운 시작점이 있는 때라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태조 말년 팔관회는 삼한일통의 위업을 축하하고 이를 이루게 한 제신과 하늘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가진 것을 읽을 수 있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거워하는 행사로 상징화되었다 하겠다.

이로써 태조는 고구려계승의식과 삼한일통의식을 전개하면서 매년 성대한 팔관회 개최를 통해 그 위업을 중심으로 자기인식을 체계화하였다. 태조 말년의 팔관회는 태조의 자기인식을 상징하는 대표적 의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태조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통치방향을 담은 훈요를 남겼다.³¹⁾

25) 『동인지문사록』 권8, 佛疏 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26) 이와 관련하여 윤경진은 고려에서 태조 즉위보다 후삼국을 통일한 시점인 병신년을 개국 기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또 이때 공을 세운 신료들을 太祖開國功臣으로 칭한 점 등을 들어 936년 일통삼한에 대한 의미를 찾은 바 있다(윤경진,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인식」, 『한국문화』 74).

27)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11월.

28)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11월.

29)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설행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86, 2014. 그러면서도 훈요십조에서 태조는 팔관회에 대해 ‘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을 섬기는 행사라고 하였다. 태조 원년 불교에 의지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에서 팔관회를 행한다는 면과는 팔관회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이 보이는 것이다.

30)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3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훈요에는 태조의 자기인식과 함께 고려가 가져야 할 문명의식에 대한 이해가 보인다. 이는 자기인식과 문명의식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고려왕조의 가치를 찾으려는 의지였다. 주지하듯 훈요에는 숭불과 불기풍수 및 서경관련 국도풍수가 언급되었다. 제불 호위의 힘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다는 내용과 함께 삼한산천의 음우에 감사하고 국가를 지키는 풍수와 천령·오악·명산대천·용신으로 대표되는 제신 숭배라는 신앙적 면이 제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유교적 수덕(修德)을 통한 왕위계승과 유교정치가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훈요의 밑바탕에는 유·불·풍수·전통신앙 등에 대한 태조의 인식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이후 태조는 이를 동방의 문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훈요십조 중 4번째의 조항에서 우리 동방은 당풍을 흠모하여 문물예악은 모두 그 제도를 따랐다 하였다. 동방과 당풍이라는 구분이 보인다. 또 고려와 거란의 풍속부동 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³²⁾ 즉, 태조는 당시의 세계를 당풍-동방(고려)-거란(夷)으로 구분하여 보면서 고려 스스로 중국과 풍속이 구태여 같을 필요가 없다 하여 고려가 가진 문물제도의 높은 위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문물예악에 함의된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편적 문명의식을 지향하되 고려가 가진 전통에 대한 존중과 심화를 함께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조의 문명의식에는 유교문명의 틀과 가치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도 고구려계승이나 삼한일통의식, 불교와 풍수, 전통신앙 등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동방으로 범주화된 문명의식은 태조대의 경우 이미 팔관회라는 통합의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태조가 제시한 훈요십조의 방향은 숭불과 숭유, 제신(諸神) 숭배 등을 통한 군신동락의 문명을 만드는 것이었고, 태조 이후에는 그 실천 과정을 통해 고려 스스로의 문명의식이 단계적으로 형성화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목할 바는 유교문명의 심화 확산이었다. 이미 태조는 즉위조서에서 풍속을 바꿔 모두 새롭게 할 것을 제시하였었다.³³⁾ 또 태조는 최응과의 대화 속에서 부도(浮屠)와 음양이 아닌 문덕(文德)이라 할 유교 정치의 실현을 언급하고 교화를 하겠다 하였다.³⁴⁾ 문덕을 닦고 교화를 행하겠다는 의지의 바탕에는 유교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태조가 천명의식 및 고구려계승의식이나 삼한일통의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유교문명의 성취를 추구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태조 대에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인재양성 및 선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나 한(漢)·당(唐)에 대한 이해, 여러 의례서의 수용, 문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에 있어 큰 진전을 보였고, 그것은 크게 본다면 유교문화의 심화확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³⁵⁾

때문에 태조가 언급한 '동방'에는 앞서 언급된 부도인 불교나 음양으로 표현된 풍수와 여러 전통신앙, 유교

32)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최승로 또한 태조의 이해와 비슷하게 시무상서에서 화하·중화에 대해 토성·토풍을 언급하여 상대화하였다. “華夏之制 不可不遵 然四方習俗 各隨土性 似難盡變 其禮樂詩書之教 君臣父子之道 宜法中華 以革卑陋 其餘車馬衣服制度 可因土風 使奢儉得中 不必苟同”(『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3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6월 정사.

34) 『補閑集』 卷上.

35) 최혜는 비판적 입장에서 참의한 일로 서술하기는 하였지만 고려의 예악문물제도 등이 천조(天朝)를 모방한 것(皆倣天朝)이라 하였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고려는 황제국의 면모로서 문명을 갖췄던 면이 있었다 여겨진다.

등이 통합된 문명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에 언급했듯이 문물예악에 바탕이 되는 문명의식의 큰 축은 유교를 통한 풍속교화나 문덕을 닦는데 있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송에서는 고려의 문물예악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고려 스스로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면에서의 문명의식에 대해서는 고려가 이룩한 문물예악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동문(同文)’과 ‘소중화(小中華)’의 용례와 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동문(同文)과 소중화(小中華)

1. 동문인식과 그 내용 변화

『고려사』를 중심으로 ‘동문(同文)’의 용례를 보자. 동문의 의미를 잘 풀이하고 있는 것이 『예기』 「중용」이다. 천자라야 예와 제도, 문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레와 글과 행함에 있어 각기 동궐(同軌)·동문(同文)·동륜(同倫)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³⁶⁾ 동문은 이들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천명을 수수한 유덕한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에 속한 이들의 문명은 같은 것이라는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달리 보자면 천자가 아니면 그러한 예악문물을 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문명의식을 좀 더 확대한다면 ‘天下同文’이나 ‘四海同文’이라 하여 대일통 천하에서 문물이 같아짐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중용」에서의 동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글귀 그대로 같은 예악문물을 누리는 동질적 문명의식의 표현이며, 두 번째는 이를 포함하여 동질적 문명을 천하가 향유하는 일통적 천하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들은 별개의 해석이라 보기보다는 하나의 통치 질서가 완성되고 그 속에서 동질적 문명이 갖추어짐을 뜻하였다. 실제 동문에 대한 용례를 보면 이 같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송 태종은 성종 4년 5월 성종에 대해 가책(加冊)하면서 고려를 ‘禮讓之邦’이라 하였다. 이어 서계(書契)는 동문(同文)이고 의관은 추로(鄒魯)의 모습을 따랐다 하였다.³⁷⁾ ‘예양지방’이나 ‘서계동문’ 등의 표현이 주목된다. 이어 성종도 책봉을 받고 대사(大赦)를 행하면서, “나의 일월(日月)을 머리에 이고 다함께 승평(昇平)을 즐기게 할 것이며, 나의 건곤(乾坤)에 있으면서 문궐(文軌)를 크게 같이 누릴 것이다.”라 하였다.³⁸⁾ 책봉문을 받으면서도 성종은 자신이 다스리는 일월건곤의 천하에서 대동문궐(大同文軌)의 예악문물 통일을 이뤄가겠다 한 것이다.

송 태종이 언급한 ‘서계동문’은 「중용」에서 나왔다 여겨지며, 또한 성종이 책봉을 받고 반포한 사면의 글

36) 『예기』 「중용」 28장, “非天子 不議禮 不制度 不考文 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

37)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4년 5월. 이보다 앞서 광종에게 건릉 4년(광종 14)에 제서(制書)를 내렸는데, 그 내용 중에도 “古先哲后 奄宅中區 曷嘗不同文軌於萬方 覃聲教於四海”라 한 부분이 보이니(『송사』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이는 고려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천하를 대상으로 한 의미가 보다 컸다.

38) 같은 책, “……必使戴我日月 並樂昇平 處我乾坤 大同文軌……”.

에 나온 '대동문궐'은 「중용」과 송 태종의 '서계동문'을 받은 것이었다. 동문이자 예양의 나라라는 송의 인식을 넘어 고려 스스로도 예와 제도, 문자를 정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고려에서의 '동문'은 '화하의 문물' 정비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면서도 태조나 최승로 등이 언급한 토성이나 토풍을 반영하여 이룬 고려적 문물의 성취를 목표로 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송의 신종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취한 군주로서 고려와의 관계 회복 또한 시도하여 거란으로부터의 압박을 해결하려 하였다. 신종의 이 같은 입장은 송과 고려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고려에 대한 조치였다. 희녕 연간에 연추방(延秋坊)에 동문관(同文館)을 두고 고려국진봉사 등을 대우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³⁹⁾ 실제로도 희녕 9년(문종 30) 고려가 최사훈을 보내자 신종은 객관을 수리하고 대접하였다.⁴⁰⁾

고려와 송의 사절은 인종 대에도 이어졌다. 인종 원년 6월 예종에 대한 제문과 위로의 글을 국신사(國信使) 예부시랑(禮部侍郎) 노윤적(路允迪) 등을 통해 보내 온 것이다. 출발 때의 상황에 대해 서궁(徐兢)은 선화 5년 3월 11일 동문관(同文館)에 가 계유(誠諭)를 들었다 하였다.⁴¹⁾ 이는 동문관이 앞서 언급한 고려사명(高麗使命)을 관장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당시 송 사신단 일원으로 온 서궁은 출발부터 고려에서의 체류, 귀국하기까지 자신이 견문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선화봉사고려도경』을 찬하여 올렸다. 그는 사신으로서의 기준에 맞추어 고려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고려도경』 중 권40에 정리한 동문(同文)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²⁾

서궁은 고려에 대한 도지(圖志) 작성을 하면서 동문의 항목으로 거(車)·서(書)·행(行)보다는 정삭(正朔)·유학(儒學)·악률(樂律)·권량(權量)의 네 가지를 주목하여 정리하였다.⁴³⁾ 송의 입장에서 고려의 정삭·유학·악률·권량에 대한 동이(同異)를 논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송의 황제나 사신 등이 행한 고려의 문물에 대한 평가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만큼 고려가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토성과 토속을 바탕으로 화하에 버금가는 성과를 이뤄낸 것을 주목한 결과였다.

서궁이 이해하고 표현한 고려에서의 '동문'은 다시금 인종 8년 4월에 전해진 남송 고종 황제의 조서에서도 제시되었다. 인종은 고종의 조서를 중화전(重華殿)에서 받았으며, 조서 내용 중에는 "생각하건대 왕은 면면히 이어온 왕업을 이어받은 이래 일찍부터 문궐(文軌)를 같이 하였다. [夙同文軌]라 한 대목이 있다.⁴⁴⁾ 송에서는 이처럼 고려에 대해 동문의식을 제시하면서 고려와의 연계를 피하여 갔다.

그렇지만 동시에 고려에서도 국제관계와는 별개로 성종이 언급했듯이 고려왕조의 천하에서 문물을 하나로 운영하는 동문을 제시하였다. 명종 대 활약한 최선(崔諤; ?~1209)은 선경전 상량문에서 바라는 바에 대해 이

39) 『宋會要輯稿』職官, 職官25 鴻臚寺 同文館, "同文館在延秋坊 熙寧中初置 以待高麗國進奉人使 舍宇二百七十八間 看館執役者 二十二人 後減十二人".

40) 『송사』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熙寧)九年 復遣崔思訓來 命中貴人倣都亭西驛例治館 待之優厚 其使來者亦益多".

41) 『고려도경』 권34, 해도1 招寶山.

42) 『고려도경』 권40, 同文.

43) 서궁은 『고려도경』에서 고려를 중화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與中華制度不異', '大抵略同中華', '非中華比', '略與中華同', '如中華之類也' 등이 이에 해당한다.

44) 『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8년 4월 갑술.

렇게 언급하였다. “원대하고 좋은 계책을 떨치시고 궁궐에 어거하시니 천하의 수레는 바퀴를 같게 하고, 글은 문자를 같게 하여 병란은 없어지고 창고는 넘치도록 차서 우리 임금님의 후손들이 백세동안 사방을 잘 다스리도록 하옵소서.”라 한 것이다.⁴⁵⁾ 이 글에서도 국왕을 중심으로 ‘車同軌書同文’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는 송이 동문관을 설치하여 ‘고려사명(高麗使命)’을 관장토록 했듯이 동문원(同文院)을 두었다. 문종은 동문원을 두어 병과권무관(丙科權務官)으로 삼고 관원을 두었으며,⁴⁶⁾ 인종은 권무관의 녹봉을 정할 때 문종 30년에 정한 것으로 8석 10두에 해당하는 권무관록에 동문원 녹사를 포함하였다.⁴⁷⁾ 이를 통해 볼 때 송에서 희녕 연간에 동문관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고려 문종이 송과의 교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을 때 동문원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⁸⁾

이때 고려가 동문원을 설치한 것은 송의 동문관 설립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었다. 동문관은 송이 고려를 회유하려는 데 설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가 송에 대해 같은 명칭을 가진 동문원을 두어 운영하려 했다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동문원은 고려 내의 혹은 고려 중심의 천하동문을 만들고자 의도하면서 두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문종 대에 여진인의 귀부를 적극 추진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동문원이 이후 그 역할을 지속하였던 배경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동문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송은 고려의 문물을 높이 평가하고 고려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문관을 설치하였고, 고려는 송의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고려 중심 천하동문을 이루고자 동문원을 둔 것이다. 하지만 동문의 용례 상 이러한 이중적인 면은 점차 중국 중심의 천하동문의식으로 기울어졌다.

예컨대 이곡은 원나라에 대해 ‘同文軌變風俗’⁴⁹⁾라 평가하였고, ‘四海車書混’⁵⁰⁾ 하였으며, ‘海外同文軌’⁵¹⁾라 하였다. 명나라가 들어선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정도전은 ‘황명(皇明)이 천명을 받아 천하에 군림하면서 문덕(文德)을 닦고 무력(武力)을 자제하는 가운데 문자와 수레가 모두 같게 되었다. [文軌畢同]’라 하였다.⁵²⁾ 몇 가지 사례처럼 다양하게 표현된 동문이기는 하지만 원이나 명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동문은 원·명을 중심으로 표현되어가는 양상을 띠 반면 고려 군주를 중심으로 한 동문 표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45) 『동인지사록』 권8, 상량문 宣慶殿上梁文, “上梁以後伏異 王猷炳燠 國祚靈長 比衆星之共辰 雲從龍風從虎 振長策而御宇 車同軌書同文 三革五兵之寢消 千倉萬廩之盈物 本支百世 綱紀四方”.

46)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보문각, “文宗以同文院爲丙科權務官 使一人三品兼之 副使一人五品兼之 錄事四人 二兼官”.

47)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녹봉 權務官祿 【文宗三十年定】.

48) 이정훈은 동문원이 주로 금과의 외교관계와 문서를 담당했음을 들어 대략 인종 4년 무렵을 주목하고 있다(이정훈, 「고려시대 금과의 외교관계와 同文院」, 『사학연구』 119, 2015, 220~225쪽).

49) 『가정집』 권3, 記 趙貞肅公祠堂記.

50) 『가정집』 권18, 읍시 灤京 二首.

51) 『가정집』 잡록, 節毛詩句題稼亭王思誠.

52) 『도은집』 도은선생시집서 정도전 찬.

2. 소중화의 용례와 의미 변화

다음은 ‘소중화(小中華)’의 등장배경과 용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려의 지식인들이 추구한 문명의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조는 동방은 예부터 당풍을 흠모하여 문물예악은 모두 그 제도를 따랐다 하였다. 최승로는 화하의 제도로 예·악·시·서와 군신·부자의 도는 마땅히 중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태조나 최승로 모두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不必苟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풍속을 바꾸는데 있어 중화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유교의 도를 치국의 도로 삼았고 경전 사서에 대한 공부는 사대부에게는 필수 요소였다. 이는 고려 유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고려 사회에 있어서 중화는 이루어야 할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태조의 ‘不必苟同’의 언급에 나타나듯이 고려의 토성과 토풍이 있기에 동방은 중화와 같을 수는 없었다. 다만 토풍과 화하는 양국의 다양한 문명 교류와 고려의 제도 정비 속에서 섞여 갔다. 이를 거쳐 고려가 추구한 중화는 고려적 문명의 완성 과정이라는 이해로 치환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 유교정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식의 심화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종은 숭유(崇儒)를 통해 육경(六經)의 뜻을 취하고 삼례(三禮)를 규범으로 하여 나라의 풍속을 효로 귀일시키고자 하였다.⁵³⁾ 서경에 수서원(修書院)을 두어 추로(鄒魯)의 유풍(遺風)을 알게 하였다.⁵⁴⁾ 최충은 현종에 대해 “주나라의 성왕(成王)·강왕(康王)과 한나라의 문제(文帝)·경제(景帝)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比之周之成康 漢之文景 亦無愧矣]”라 하였는데, 거란과 화친을 맺고 문치를 닦아 내외 안정이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평가였다.⁵⁵⁾ 또 이제현 역시도 현종의 치세에 대해 공자가 우임금에 대해 평한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다(吾無間然矣)”라는 구절을 들어 찬을 지었다.⁵⁶⁾ 문종은 최충에게 내린 관고(官誥)에서 최충이 임금을 잘 보좌하여 태평성대의 국운을 이뤄가고 있음에 대해 순임금이 8명의 인재(八元)를 기용하고 주왕실이 4명의 현자를 맞이함으로써 제왕의 덕화(帝化)를 이룩한 것과 같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는 최충이 죽자 조문하는 조서에서 홀연히 공자가 돌아가신 것과 같은 슬픔이라 표현하였다(忽感宣尼之摧棟).⁵⁷⁾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는 군자의 나라로 상징화되었다. 이러한 성취를 보여준 사례를 보자. 문종 6년 6월의 기사에 송의 진사 장정이 귀부하자 그에게 비서교서랑(祕書校書郎)의 지위를 내리면서 교서에 ‘君子之邦’에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⁵⁸⁾ 송의 진사 출신에 대한 이 같은 표현은 그만큼 문물이 갖춰졌음을 자신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물론 앞서 거란과 큰 전쟁을 치루면서도 왕조를 지키고 예의문물을 성대하게 갖췄다는 이해가 바탕에 있었다.

5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9월 병자.

5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5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2년 史臣崔冲贊.

56)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2년 李齊賢曰. 이제현이 인용한 ‘吾無間然者’는 『논어』 태백 제8 21장에 나오는 것으로 “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飲食 而致孝乎鬼神 惡衣服 而致美乎黻冕 卑宮室 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

57) 『고려사』 권95, 열전8 최충.

58)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6년 6월 무인.

송 신종은 문종 22년 7월 고려에 대해 예로부터 군자의 나라(君子之國)로 일컬어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고려를 회유하고자 하였다.⁵⁹⁾ 물론 이외에도 거란과의 경쟁 구도가 격화될 때 고려에 화친의 손을 내민 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테면 송 황제의 고려에 대한 군자의 나라라는 표현 등은 고려를 회유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⁶⁰⁾ 정황상 인정될 수 있는 지적이지만 문종 스스로가 고려는 군자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송사』 등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 않으나 『고려사』 등에는 ‘小中華’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⁶¹⁾ 소중화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중화에 버금간다는 이해 속에서 칭해진 것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앞서 문종 12년 8월 내시문하성에서 올린 글에 고려의 문물예악이 흥성한 것이 오래라는 자신감을 들 수 있다.⁶²⁾

다음 사례를 보자. 김근(金覲)과 박인량(朴寅亮) 등은 문종 34년 3월 송에서 약재를 보내준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한 사절로 송을 방문하였다.⁶³⁾ 당시 송에서는 고려에 대해 동문관을 설치하여 우대하고 있었다. 이에 박인량 등이 송에 갔을 때 고려에 대해 소중화라 칭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때문에 송에서 두 사람이 지은 시문을 간행하고 『소화집(小華集)』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⁶⁴⁾ 또한 그러한 송에서의 분위기와 표현이 있었기에 박인량은 문종애책문에서 고려의 역사흐름 속에서 또 고려의 정체성을 ‘군자의 나라’로부터 ‘천명을 받은 태조와 통일’, ‘용손의 전개’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문종 대의 업적에 대해 예악문물의 흥성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소중화’라 하였다(聲名烜赫 文物芬葩 比盛上國 稱小中華).⁶⁵⁾

이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의 시점이 문종 대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박인량이 관계되었으며, 세 번째는 소중화 혹은 소화라는 고려에 대한 칭송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고려사』에서 소화나 소중화와 관련한 이해가 위 두 사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려 스스로도 자신과 주변을 문명의식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제왕의 혜화(惠和)를 베풀겠다는 의지가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인량 등이 볼 때 문종의 정치는 상국에 견줄만한 것으로서 소중화라 칭해질 수 있다 한 것이라 이해된다.⁶⁶⁾

59)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2년 7월 신사.

60) 이 같은 과정의 결과물은 양국의 사신 왕래로 이어졌다. 문종 25년 3월 민관시랑(民官侍郎) 김계(金梯) 등이 송에 표문과 예물을 가지고 갔으며, 문종 26년 6월 갑술에 송 신종의 칙서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문종 32년 4월 신미에는 송 신종이 사신을 보내 통신(通信)하겠다는 뜻을 보내고 6월 갑인일에 송 국신사(國信使)인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안도(安燾)와 기거사인(起居舍人) 진목(陳睦) 일행이 예성강에 도착하기에 이르렀다. 문종 34년 7월 송에서 보낸 문서에서는 “요동 땅에 나라를 정해 해동(海東)이라 하고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려 왔으며”라 하였다. 송에서 고려를 지칭해 ‘해동’이라 칭하였음은 국제정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고려의 위상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여겨진다.

61) 『송사』 등에서 ‘小中華’의 표현은 찾아지지 않는다. 송의 입장에서 고려에 대해 ‘동문’으로 범주화시킴으로써 ‘소중화’와 같은 의미로 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소중화의 언급이 없어 고려 측 사료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박대재,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2016; 최봉준, 「고려전기 역사계승의식과 이중적 자아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최중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2017.

62)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2년 8월 을사.

63)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4년 3월 임신.

64) 『고려사』 권95, 열전8 박인량.

65) 『동인지문사록』 권5, 책문 文王哀冊 朴寅亮.

상국과 견줄만한 고려의 문물은 송에서 칭송하던 스스로 ‘소중화’를 자부하던 문명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려는 스스로에 대해 ‘풍입송(風入松)’에서 성덕(聖德)이 있는 해동천자가 다스리며 부처와 하늘이 도움을 주어 외국과 남만북적 등이 귀의하여 사방 변경이 평안해졌다는 구절로 칭송하였다.⁶⁷⁾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태평천하를 ‘화(華)’라 하고 남만북적의 표현에 나오듯이 ‘화(華)’가 아닌 이들을 ‘이(夷)’라 구분한 것이다. 이어서는 화이의식(華夷意識) 속에서 화(華)와 호용(胡戎) 혹은 이(夷)를 나누어 이(夷)에 대해 해화의 정치를 펴고자 했다.

금에 대한 사대를 행하는 동안에도 이 같은 인식이 고려사회에 지속되고 있음은 이규보가 「화이도(華夷圖)」에 대해 제(題)한 장단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규보는 고려의 재현(才賢)은 중하(中夏)와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하면서 호용은 크기만 하고 초개(草芥)같다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는 화인(華人)들이 우리를 ‘소중화’라 칭송하고 있다 하였다.⁶⁸⁾

이같이 소중화가 고려의 문명 의식을 상징화하자 이를 표현한 글들이 더욱 많아졌다. 예컨대 김구(金丘)는 좌주인 김양경에게 의발(衣鉢)을 감사하며 올린 글에서 고려가 태평의 풍월을 맞이하였으며 예의의 강산을 이루었다 하면서 유도(儒道)의 성행으로 소중화라 칭해질 정도가 되었다 하였다.⁶⁹⁾ 이승휴 역시도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고려가 예의가(禮義家)가 되매 화인(華人)이 소중화를 제작(題作)하였다 하고 하였다.⁷⁰⁾ 이색(李穡)도 고려의 문장이 성행한 데 대해 필전(筆戰)하는 것이 용투야(龍鬪野)와 같다 하고 이어 중원에서 흠모하여 소중화라 하였다 하고 썼다.⁷¹⁾

고려의 문물과 예의, 인재 및 유도(儒道)의 성함을 들어 중국에서 고려를 소중화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해가 보이는 것이다. 목은 이색은 송과 교류하던 문종 대에 예악을 서로 닦아 태평을 이뤘고 당시 소중화관(小中華館)이 있었다 하였다.⁷²⁾ 이 같은 이색의 언급 이래 공양왕 때 박초(朴礎)는 상소하여 무신정변 이전에는 유학에 밝은 명유가 많아 송에서는 고려를 문물과 예악의 나라라 불렀으며, 이에 고려의 사신이 내리는 하마소를 ‘小中華之館’이라 이름붙였다 하였다.⁷³⁾ 이달충 역시도 “당시 스스로 소중화라 하였다(當時自謂小中華)”. 라 하여 과거의 소중화에 대하여 읊은 바 있다.⁷⁴⁾

66) 특히 문종 대의 이 같은 문명 의식이 가장 잘 압축되어 제시된 것이 ‘풍입송(風入松)’이라 여겨진다. 박인량이 찬한 문종 에 책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풍입송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94, 2018.

67) 『고려사』 권71, 지25 약2 속악 풍입송.

68) 『동국이상국전집』 권17, 고을시 題華夷圖長短句, “……今古才賢衮衮生 較之中夏毋多愧 有人曰國無則非 胡戎雖大猶如芥 君不見華人謂我小中華 此語真堪採”. 이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진화(陳渾)는 서장관으로서 봉사입금(奉使入金)하며 남긴 시에서 “서화(西華)는 이미 시들고, 북새(北塞)는 혼몽(昏曠)한데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니 천동(天東)의 해 붉어지려 하네”라 하여 천동 즉 고려의 문명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보한집』 권 상, 文宗大康七年辛酉).

69) 『동인지문사록』 권15, 啓 上座主金相國謝衣鉢啓【良鏡】金丘, “……長安百萬家 渾是大平之風月 故國三千里 摠爲禮義之江山 ……自茲以降 祗率厥章 儒道盛行 世不殊乎大上古 海邦雖僻 人皆謂之小中華……”.

70) 『제왕운기』 卷下. 이승휴(李承休; 1224~1300)보다 약간 뒤 시기를 살았던 최해(崔海; 1287~1340)는 화이를 구분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화인(華人), 고려에 대해서는 동인(東人)이라 칭하였다(『拙藁千首』 권2, 東人之文序).

71) 『목은시고』 권17, 시 閔祗候安仁 集諸家詩稿 將續拙翁東文 予喜之甚 作短歌以助其成, “……孤雲以來多作者 筆戰有如龍鬪野 中原散羨小中華 日星晃朗光相射……”.

72) 『목은시고』 권18, 시 懷古, “國家遭遇宋文明 禮樂交修最太平……萬古難磨忠義在 小中華館豈虛名”.

73) 『고려사』 권120, 열전33 김자수, “……故唐家以爲君子之國 宋朝以爲文物禮樂之邦 題本國使臣下馬所曰小中華之館……”.

그런데 예악문물의 흥성함이나 인제가 많았던 시대 혹은 그러한 시대와 견주어 자신의 시대를 읊고자 했던 사대부들의 소중화에 대한 이해를 보면 변화가 보인다. 예컨대 이색의 시를 보면, “어찌하면 인재를 얻어 문치가 예전보다 빛나세(焉得人文光古昔) 소중화의 풍속이 중원과 같아질 수 있을까(小中華俗似中原)”라 하였다. 이를 보면 이색은 고려 자신을 소중화라 칭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원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 하여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 같은 변화의 기저에는 사실 스스로가 이론 예악문물에 대한 자부감이라기보다는 중원 혹은 명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있음이 느껴진다. 이는 고려 말 문인지식층의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⁷⁵⁾

이처럼 소중화는 고려의 예악문물이 중화와 비견된다는 의미에서 쓰였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로 통괄하여 말하기 어렵다. 첫 번째로는 다원적 국제관계가 전개되는 속에서 송이 고려와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와 연계하여 고려의 예악문물을 중화와 비교하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 의도도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만큼 문물의 성함을 상징화하려 했음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소중화의 명칭에 대해 고려 중심의 화이의식과 문명의식을 토대로 화이질서를 만들려 했음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천하의 바탕으로 이 같은 문명의식이 가능했다 여겨진다. 네 번째로, 소중화는 예악문물의 흥성함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나 점차 명 중심의 문명 질서 속 소중화 의식으로 내면화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동인의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보다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의 문명의식을 지칭한 것이라 이해된다.

IV. 고려 중심 해동천하 문명의식의 전환과 의미

주지하듯 고려는 문자와 문장, 사상, 개혁, 제도, 예악 등을 정비하고 인재 양성 및 외교관계 등을 위해 경사(經史)의 학문 즉 유교전장을 토대로 삼았다. 유교사상의 논리를 수용해야 했을 고려는 동방이나 토풍, 해동 등의 독자성과 해당 문화를 주장하고자 하나 항상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화이라는 문명의식 속에서 어떻게 문명의식을 자부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방향을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 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바처럼 고려사회는 천명의식과 고구려계승 및 삼한일통의식을 토대로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고려적 자기인식의 한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교문물을 통해서도 점차 화이의식을 수용하면서 이중적 화이의식 혹은 자기인식을 가졌다.⁷⁶⁾

74) 『霽亭集』 권1, 詩 倚風樓, “當時自謂小中華 半月城空鎖晚霞……”.

75) 林榮澤, 「고려 말 문인지식층(文人知識層)의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1996, 一潮閣.

76) 이 같은 인식에 대해 도현철은 자기 의식으로서 소중화의식을 지적하였다(도현철, 「원명교체가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도현철의 견해와는 약간 달리 최중석은 고려 말의 화이의식을 “자신을 뒤희로 간주하는 화이의식”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려는 자기인식과 이중적 화의의식을 결합하여 고려왕실의 존엄과 문명적 독자성을 상징화하는 시도를 하였을 것이다. 태조나 최승로 등이 보았을 때 화하나 당풍, 화풍, 중화의 법제나 예약 문물 수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중국에서 수용한 유교의 습득과 성취였지만 이를 넘어 토풍과 화풍을 토대로 자기인식을 하면서 새로이 고려적 문명의식을 만드는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중국적 중화(中華)가 아닌 고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신을 담은 새로운 틀에 있었을 것이다. 이 틀을 왕실 및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태조 초부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대하게 정기적으로 열린 팔관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불교의식의 하나로 출발한 팔관회이지만 고려 왕조에 들어서면서 그 성격은 현저히 바뀌었다. 팔관회는 태조 대부터 여러 대에 걸쳐 그 의식이 정비되었다. 드러난 면만 보자면 팔관회는 ① 공불락신(供佛樂神)의 불교의례,⁷⁷⁾ ② 태조 19년 사선악부(四仙樂府) 등이 동원된 삼한일통을 기념하는 성대한 통합의례,⁷⁸⁾ ③ 태조 말년 혼요십조에 나타나는 천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행사⁷⁹⁾로의 전환, ④ 태조와 삼한일통 공신이 등장하는 우인(偶人)의 등장,⁸⁰⁾ ⑤ 개경 및 서경 양경에서의 팔관회 개최,⁸¹⁾ ⑥ 현종 대의 팔관회 개최,⁸²⁾ ⑦ 법왕사 행향과 중외관원의 상표진하(上表進賀) 및 외국상인과 번국이 참여하는 왕실 국가의례화,⁸³⁾ ⑧ 해동천자가 당금의 제왕이고 부처가 가호하는 나라임을 노래한 「풍입송」이 갖춰진 문종 대의 대회,⁸⁴⁾ ⑨ 고려에서 가장 성대한 의례 내용을 갖춘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 의례⁸⁵⁾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팔관회에는 개최 시기와 관련해 서경에서의 10월 개최는 고구려의 동맹(東盟)을, 개경에서의 중동인 11월 개최는 절기 상 동지(冬至)를 상징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계승 및 제천의식의 면이 있었다. 또한 개최 공간의 경우를 보자. 팔관회 때는 용손의식의 상징으로서 용조이자 성조인 태조진영을 모신 대(臺)를 의봉루(儀鳳樓)에 두고 이에 대해 참배하면서 작헌하였다.⁸⁶⁾ 또 그 의례는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라 여긴 개경

이라 하였으며(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禱로 간주하는 화의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민족문화연구』 74, 2017), 최봉준은 이에 대해 당풍을 따르고 문화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자아와 자기 전통 안에서 문화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자아 두 가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보고 이를 이중적 자아인식이라 보았다(최봉준, 「고려시대 사회 성격론과 다원적 성격의 구조적 이해」, 『역사와 실학』 67, 2018, 208쪽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해안, 2019)). 그리고 적어도 고려 전기 이중적 자아인식은 해동천하의 중심으로서 '華로서의 자아'와 '주변국으로서의 자아'라 보았다(최봉준, 「고려전기 역사계승의식과 이중적 자아인식」,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해안, 2019).

77)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원년 11월.

78)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設行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86, 2014.

79)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80)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8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6년 10월. 이때 양경에서의 팔관회를 정지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 시기 개경과 서경의 팔관회가 개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2)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원년 11월 경인.

83)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즉위년 11월 경자.

84)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실행(設行)과 통합의식(統合意識)」,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이 논문에서는 풍입송에서 노래하는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해동천하의 시대는 문종 대로 보고 있다.

85) 『고려사』 권69, 지23 예11 가례잡의 중동팔관회의.

86) 태조가 남긴 혼요에서의 용신은 토속신앙적 면을 띠는 것이었겠으나 이후 태조의 선대인 작제건과 용녀의 만남 관련 내용이 형성되면서 태조를 중심으로 한 왕실 혈통은 용손으로 정리되었다. 박인량은 문종에책문을 통해 '용손사흥(龍孫嗣興)'을 언급하였으며, 이후 '용손십이진(龍孫十二盡)'설이 나와 왕위 교체에 당위성이 거론되었다. 고종은 신묘(神廟)에 산신기

궁궐의 구정(毬庭)에서 행해졌으며,⁸⁷⁾ 여기에 더해 국왕은 호국 왕실 사찰로서 ‘불법(佛法)의 왕’을 모신 법왕사에 나아가 행향(行香)을 하여 왕즉불의 면을 상징화하고 불력(佛力)에 기도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였다.⁸⁸⁾ 참여범위를 보면 위로부터는 태자로부터 삼경유수(三京留守)·동서병마사(東西兵馬使)·팔목(八牧)·사도호(四都護)의 지방에서 봉표원이 하표와 방물 등을 가지고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송나라 상인, 동서번, 탐라국 등도 참가하여 방물을 올렸다. 팔관회에 참가한 범위가 국내만이 아니라 송나라 상객을 제외하더라도 동서번과 탐라에 이르고 있어 고려의 천하에 속한 이들이 모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도 팔관회에서는 고려의 건국과 통일 등에 기여한 김락·신승겸 등을 기리는 내용에서 보듯 위령제의 면과 함께 사선악부(四仙樂府)의 동원과 백희가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선랑(仙郎)의 역할이 있었다. 국왕에 대해서는 금오산 액호에 ‘성수만세(聖壽萬歲)’라 하였으며,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면 팔방의 상표(上表)가 전정(殿庭)에 이르니 천하가 태평하다(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는 내용이 있었다.⁸⁹⁾ 국왕의 덕과 만세를 기원하는 노래로서 해동천자를 칭하여 노래한 ‘풍입송’이 연주되었다. 의례에서 국왕은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자황포를 착용하였고, 무도(舞蹈), 명편(鳴鞭), 산호(山呼), 성궁만복(聖躬萬福), 천만세수주(千萬世壽酒) 등이 행해졌다.⁹⁰⁾

이처럼 고려에서는 왕실과 국가가 지향한 태조유공을 팔관회로 상징하였다. 팔관회에서 연주된 「풍입송」에서 고려는 스스로를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라 하였다. 의례 형식이나 상징표현 내용의 문장, 해화와 양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례(嘉禮)의 측면을, 보살계를 받은 군주가 예조진작헌(詣祖眞酌獻)을 통해 태조를 추송하고 법왕사에 행차하는 면에서는 불교 및 태조 추송의례를, 천령·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면에서는 도교와 토속신앙의 면을, 국왕을 중심으로 중외관원 및 상인·번국인으로 구분한 면에서는 고려적 천하질서인 해동천하를, 연등회나 원구의 등의 차원을 넘는 성대한 의례 절차 및 의례가 끝난 후 베푸는 대포(大醮)는 해화에 기초한 사회통합 등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⁹¹⁾ 더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동천자를 노래한 풍입송이 연주되던 때가 송에서 고려에 대해 동문 및 소중화를 칭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팔관회에는 고려의 정체성과 자기인식이 의례의 형태로 함축되어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고려에서 가장 성대한 왕실 및 국가통합의례로서 팔관회는 고려 천하 즉 해동천하의 태평을 노래한 것이었고, 고려를

(山川神祇)를 합사하여 적병 퇴치를 비는 글에서 ‘용조(龍祖)’의 위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 훈요에서의 용신은 팔관회가 정비되면서 태조 자신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에서도 용손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고려 왕실은 보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혈통을 용손으로 신성화했음을 읽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2012;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設行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2014; 이정란,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55, 2014;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94, 2018.

87) 이현정, 「고려시대 毬庭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212, 2011.

88)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84쪽.

89) 『고려사』 권69, 지23 예11 가례잡의 충렬왕 원년 11월 경진.

90)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91) 팔관회 의례의 성대함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奥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정수, 앞의 논문, 2018.

상징하는 문명의식을 함축, 의미한 것이었다. 또 여기에는 태조 때부터 추구해온 불교와 선량, 토속신앙 등이 내재하는 토풍과 화하의 예악문물제도의 내용을 빌어 표현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화풍이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고려 왕실과 국가의 천하인식을 뜻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같은 문명의식이 정점에 달하였던 때는 문종 대였고, 당시 고려는 굳이 송과의 교류가 없어도 되는 예악문물이 흥성하던 때였다.⁹²⁾

이는 해동천자가 형정이나 정벌로 ‘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화를 베풀어 번국으로서의 ‘이’를 교화하겠다는 논리로 확대되었다. 고려의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천하에 번국 등의 ‘이’가 포함된다는 인식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문종 대에는 다른 때보다도 동서번 여진인의 투화현상이 급증하였다.⁹³⁾ 이규보가 쓴 「화이도(華夷圖)」 관련 장단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었다.⁹⁴⁾ 화를 기준으로 하는 소중화 문명의식이 반영되고 있었지만 고려적 시각이 반영된 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단계까지는 화풍을 전제로 하되 이를 토대로 토풍을 결합하면서 고려가 자기인식의 수준을 심화시켜 송이 동문·소중화로 대할 문명의식을 형성했다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실의 천명 의식이나 신성 혈통의 용손의식, 역사계승 및 명분의식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삼교통합적 성격을 띠는 불교·선량·토속신앙·풍수 등이 있었다. 또한 경학에 대한 이해 기반 위에서 경세와 군주의 수덕, 통합을 위한 혜화(惠和)와 덕치를 통한 왕화(王化) 정치, 유교와 왕실 및 국가의 위상을 반영한 의례 정비 등 유교의 차국 및 예악문물이 결합하였다. 당시 이 같은 문명의식이 가능했던 것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가 자기인식을 토대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식을 형성하면서 그 가운데 다양한 정치·종교·문화 등의 요소를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팔관회는 건국 초부터 중시되어 왕실과 국가 차원에서 최대의례가 되었고 해동천하의 문명의식을 상징하였다.

그런데 동문·소중화의 용례와 함께 언급되는 문명 상징 용어가 보인다. 송, 거란, 금 등은 고려에 대해 기자의 뒤를 이었다 하고 있는 것이다.⁹⁵⁾ 문명적 동질성의 기원을 언급하는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려가 문물을 이룰 수 있다는 이해의 소산임도 분명하다. 때문에 군자(君子)나 인의(仁義), 예악교화 등이 행해져 중하(中夏)와 견줄만 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이어 제시된 동문과 소중화라는 상징어는 고려의 문명에 대해 자국만아니라 국제질서 속에서 인정받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동문과 소중화의 용례를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원 간섭기 및 원명교체기, 명에 대한 사대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팔관회로 상징된 고려 중심 문명의식은 바뀌었다. 고려의 군주나 왕실 혹은 국가가

92) 문종 12년 8월 을사에 내사문학성에서는 아국의 문물 예악이 흥행한지 오래되어 상선이 끊이지 않고 진기한 보물이 날마다 이르고 있다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도움이 될 것이 없으므로 거란과 영원히 단절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송과 사신을 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였다. 실제 송과의 통신이 이루어진 것은 문종 30년에 이르러서였지만 문종 12년의 이 같은 상언은 음미해야 할 바가 있더라도 그만큼 고려 스스로 이룬 예악문물에 자부심이 있었음을 전해준다 하겠다.

93) 문종~순종(1047~1083)의 시기에 여진계의 경우 19,259명과 함께 18회의 귀화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59쪽).

94)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17, 고을시 題華夷圖長短句, “今古才賢衰衰生 較之中夏毋多愧 有人曰國無則非 胡戎雖大猶如芥 君不見華人謂我小中華 此語真堪採”.

95) 예컨대 ‘履箕子作蕃之跡’(태조 16년 3월 신사), ‘當國 襲箕子之國’(문종 9년 7월 정사), ‘箕子啓封 肇於遼左’(문종 26년 6월 갑술), ‘粵箕子之故區’(신종 2년 5월 신축), ‘箕子始封本國’(충숙왕 12년 10월 을미), ‘箕子受封於此’(공민왕 원년 2월 병자), ‘永綏箕子之封’(공민왕 21년 3월 갑인) 등이 보인다.

왕화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사대부들 역시 원이나 명 중심의 천하동문을 주목한 면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해는 『졸고천백』의 동인사록 서문에서 원에 귀부하기 전 고려에서는 국왕을 일컬어 성상(聖上), 황상(皇上)이라 하고 국왕은 자신을 집(朕), 여일인(予一人)이라 부르고 명령(命令)을 조(詔) 또는 제(制)라 부르며, 사면하면서는 ‘천하에 대사면을 시행하다[大赦天下]’라고 하였다 기록했다. 그리고는 이를 크게 참유(譖諭)한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⁹⁶⁾

이어 고려는 ‘불개토풍(不改土風)’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형세론적 화이의식 속에서 원을 중심으로 사고하였다. 즉, 대원(大元)의 성덕(聖德)을 찬양하며 작공(作貢)하여 문궤(文軌)를 통일해야 한다라 한 내용이 보인다.⁹⁷⁾ 32년만에 다시 만나는 이제현에게 원의 탕병룡(湯炳龍)은 거서가 같게 되어 예악이 동으로 갈 수 있었고 때문에 유학에 통달할 수 있었음을 썼고,⁹⁸⁾ 성원(聖元)의 시대에 해외에서 동문궤가 이루어졌음을 시로 표현하였다.⁹⁹⁾ 조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왕지제(時王之制)’의 압박을 받아 ‘화’를 바꿔 ‘이’를 따른 것이었다(變華從戎)라 평가하였다.¹⁰⁰⁾

이처럼 원 간섭기 동안에는 원 천하에 대해 천하동문, 천하일통으로 칭송하였으나 명이 성립하자 고려는 명에 대한 이해 정립을 시도하였다. 공민왕이 명에 대한 사대를 결정한 이래 이색은 명 태조의 등극에 대해 경명(景命)을 받아 중국 황왕(皇王)의 정통을 회복하여 화하(華夏)와 만맥(蠻貊)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⁰¹⁾ 정몽주는 선왕의 명에 대한 사대를 따라야 함을 역설하면서 그 명분으로 천하의 의주(義主)가 누구인가를 살피 사대하여 온 바 명 태조가 의주임을 내세웠다.¹⁰²⁾ 명이 화하의 정통이라 본 것이다.

결국 고려는 명에 대해 중국의 정통을 회복하고 화하 문명을 얻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어서는 종족적 공간적 측면에서 진명천자가 다스리는 명을 받들어 중화문화의 수용을 통해 고려의 문물을 바꾸려는 입장을 가졌다(用夏變夷).¹⁰³⁾ 명의 축 정벌을 축하하는 표문에서 동문이 이뤄졌으니 누가 조회하지 않겠는가라 하여 명의 천하에 고려가 속하였음을 보였다.¹⁰⁴⁾ 또 명에 대해 천운을 만나 동문(同文)을 얻어 사해가 일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표문을 올렸다.¹⁰⁵⁾

96) 『졸고천백』 권2, 東人四六序.

97) 『익재난고』 권2, 시 道見月支使者獻馬歸國.

98) 『익재난고』 권4, 시 延祐己未 予從於忠宣王.

99) 『가정집』 가정잡록, 節毛詩句題稼亭王思誠. 채용석은 원 간섭기 속에서 성리학자들은 고려의 정치적 공동체의 자주성, 역사공동체로서의 국가 유지라는 이해를 보여주었지만 자부심에 있어서는 전통문화나 불교가 아닌 유교문화를 보다 주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론적 천하관을 견지한 면을 보여주었다 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국속(國俗)에 대해 고유문화이더라도 성리학 이념 속에서 교화 개혁 대상으로 파악하는 모순성을 드러냈다고 보았다(채용석, 「원 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2003).

100) 『고려사』 권118, 열전31 조준.

101) 『목은문고』 권11, 사대표전 賀登極表.

102) 『고려사』 권117, 열전30 정몽주, “……念吾東方 僻在海外 自我太祖 起於唐季 禮事中國 其事之也 視天下之義主而已……”.

103) ‘용하변이’는 『맹자』 등문공편에 나온다. 즉,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라 하였는데, 고려에서는 특히 이 구절을 송과 명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예종 10년 7월 무자일에 송의 태학에 입학을 청하는 표문과 공민왕 23년 3월 명에 자체입학을 청하는 표문, 조준이 시무 상서에서 호복 개혁을 위해 용하변이하고자 한 것, 우왕 12년 2월 명에 의관을 청하는 표문 등에 보인다. 즉 이는 중화를 통해 고려의 예악문물을 고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도현철, 앞의 논문, 2000 116~120쪽 참조.

104)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 3월 갑인.

이색의 자제입학을 청하는 표문이나 정몽주가 의관을 청하는 표문에서, 혹은 조준의 시무 등에서 나타난 용하변이론의 특징은 결국 명이 화하의 문명을 크게 열어 예악문물 등 일대의 법을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려가 예악문물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태조 유풍의 완성 모델이라 할 팔관회로 상징되는 해동천하의 문명의식은 결국 '이'의 것일 따름이었다. 종족적 공간적 유교적 정통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명교체기인 고려 말에 들어와 반원개혁과 함께 문종 구제로 상징되는 해동천하문명의식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명에 대한 사대가 이루어지면서 명 중심의 '용하변이'가 자리잡게 되었다.¹⁰⁶⁾

이처럼 중국 중심의 화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토대로 고려 중심의 화이론적 문명의식을 운영하고자 했던 고려의 노력은 원명교체기 속 주자성리학의 수용, 명에 대한 사대와 용하변이론의 대두 등으로 질적 변화를 겪었다. 고려 중심의 문명의식 기저에 있던 불교나 토속신앙, 해동천자 혹은 황계국 체제의 상징 등이 배제되었고 본받아야 할 태조유풍이나 문종의 정치 역시도 유교적 입장으로만 해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 조선 태조 원년 8월에 이루어진 팔관회의 혁파였다.¹⁰⁷⁾

V. 맺음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고려가 어떻게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와 함께 내외부의 시각이 함축된 문명의식과 그 동질감의 표현이라 할 동문·소중화의 용례 사용과 변화 등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가 가진 문명의식의 내용과 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려 태조는 천명의식 속에서 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연호를 '천수'라 개원했고, 고구려계승의식 속에서 국호를 '고려'라 정하였다. 통일과정을 통해서 삼한일통의식을 확립하여 자기인식의 틀을 만들었다. 이어서는 동방과 유교에 근원한 당풍을 구분하고 다시 고려와 거란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태조는 천명의식 및 고구려계승의식이나 삼한일통의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풍역속을 위해 유교문명의 성취를 추구하였다. 태조가 정리한 자기인식과 문명의식은 팔관회와 훈요를 통해 상징화되었고, 이는 후대에 더욱 정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송에서는 고려에 대해 동문·소중화라 칭하였다. 그것은 고려의 예악문물이 중화에 버금간다는 상징이었다. 동문이나 소중화 등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의 역사문물의 기원이라 여긴 기자 관련 표현을 넘어 고려의 문물을 높이 평가하고 고려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면이 있다. 고려는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동문을 이루고자 하였다. 고려의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천하의 문

105) 『고려사』 권136, 열전49 우왕 13년 윤6월.

106) 이에 대해 도현철은 원명교체기 소중화의식은 명이라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개혁정치를 추구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논리이자 독자적인 문화를 견지하려는 자기 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도현철, 앞의 논문, 2000, 120쪽).

107)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갑인(5).

명의식은 팔관회로 상징되었다. 하지만 동문과 소중화 관련 용례 분석을 통해 볼 때 원 및 명 중심 시대에 이르면서 고려 중심의 문명의식은 원 및 명에 대한 사대로 정리되어 갔다.

고려의 자기인식이라 할 고려 중심 문명의식의 형성은 팔관회에 반영된 해동천의 화이의식으로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불교나 유교, 도교 등의 삼교와 토속신앙, 하늘과 부처의 가호를 받는 용손으로서의 왕실혈통의식, 해동천자로서의 장엄과 해동천하질서를 반영하는 의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송은 해동천하의 모습을 갖춘 고려에서 동문과 소중화라는 요소를 찾아 이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고려 역시도 이 같은 이해를 토대로 고려의 해동천하라는 문명의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이 같은 시대 배경에는 다원적 국제질서라는 틀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원과 명이 국제질서를 지배하자 고려는 이들에 대해 형세론적 화이의식을 수용하였고, 고려를 중심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동문이나 소중화 인식도 굴절되는 면이 나타났다. 고려 중심의 문명의식 혹은 그 상징이었던 팔관회도 이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고려는 원 중심의 천하동문을 인정한 데 이어 명이 들어서자 명에 대한 사대를 결정하면서 종속적 공간적 유교적 정통을 인정하고 용하변이적 화이의식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종속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중적이지만 명과 주자성리학 중심의 용하변이를 추구한 것이 된다. 이는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불·도 및 토속신앙, 용손혈통의식 등이 반영된 통합의 레이자 고려를 상징하는 팔관회에 반영된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천하동문의 문명의식 즉 해동천하 문명의식이 해체된 것을 뜻하였다. 고려가 왕실 및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간 문명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변화 내용은 화이질서를 인정하면서 고려왕조가 형성해 온 정체성 보다는 기사에서 연원하는 역사정통성을 찾아냄과 함께 왕실보다는 사대부가 보편적 성리학을 내면화하여 소중화적 동인의식(東人意識)을 새롭게 만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金鍾哲, 「여말선초 시문선집 편찬의식으로서의 ‘東人의 文明意識’과 ‘王化意識’」, 『東方漢文學』 26, 2004.
 盧明鎬,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1999.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노명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2019.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2000.
 박대재,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2016.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윤경진,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2016.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양상」, 『한국문화』 77, 2017.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 李貞薰, 「고려시대 금과의 대외관계와 同文院」, 『史學研究』 119, 2015.
- 鄭墉謨, 「고려 중기 東人意識의 형성과 詩文選集의 편찬」, 『東洋漢文學研究』 36, 2013.
- 채웅석,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2003.
- 채웅석 편저,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해안, 2019.
- 최봉준, 「고려시대 사회 성격론과 다원사회의 구조적 이해」, 『歷史와 實學』 67, 2018.
- 최봉준, 「고려전기 역사계승의식과 이중적 자아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2017.
- 秋明燁,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2005.
- 추명엽, 「고려의 다원적 종족 구성과 ‘我國·我東方’ 의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109, 2018.
- 한정수, 「고려전기 異邦人·歸化人の 입국과 海東천하」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 한정수, 「고려 문종 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韓國思想과 文化』 94, 2018.
- 奥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 이 논문은 2020년 2월 28일에 투고되어,
2020년 4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4월 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Formation of Self-awareness and Change of Consciousness of Civilization in the Goryeo Dynasty

Han, Jung Soo*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background of Goryeo's self-awareness and the cases of the Song Dynasty, in particular, referring to Goryeo as Dong-Moon(同文) and Sojunghwa(小中華).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find out the contents of the civilization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meaning of the change. To sum up, as follows.

The self-awareness and civilization of Goryeo originate from the beginning of King Taejo. This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Tian-Ming(天命), the consciousness of succession of Goguryeo, and the Notion of Three Hans are One. And the three religions(儒·佛·道), folk beliefs, and Yongsonuisik(龍孫意識) were reflected. It was symbolized by the Palgvanhoe(八關會) related to the Heavenly Lord, which was ruled by Haedongcheonja(海東天子). The China-centered World Order and civilization centered on the Goryeo Dynasty were formed. Song referred to this consideration as Dong-Moon and Sojunghwa. This was the perception that the Li-Yue(禮樂) of Goryeo was second only to Junghwa(中華). There was an intentional aspect of the Song Dynasty's bid to bring Goryeo to Song's side amid the pluralistic international order. However, Goryeo was also confident of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confident in its Hui(華夷) consciousness centered on the Goryeo.

Meanwhile, the Goryeo Dynasty recognized Cheonha Dong-Moon(天下同文) by accepting Hui consciousness centered on Yuan Dynasty during Yuan's intervention period. When the Ming Dynasty was founded, Goryeo decided Sadae(事大) on Ming, recognizing the ethnic, spatial and Confucian orthodoxy and pursuing Hui consciousness centered on Ming Dynasty. It meant the dissolution of civilization centered on the Goryeo Dynasty. On the other hand, it is dualistic, and it seeks the idea the yi by the Xia(用夏變夷) centered on Ming and Neo-Confucianism. This is considered to be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self-awareness and civilization centered on Goryeo,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times.

[Key Words] Tian-Ming, Consciousness of succeeding Goguryeo, Notion of Three Hans being one, Dong-Moon, Sojunghwa, Haedongcheonja, Palgvanhoe, Transforming the yi by the Xia

* Associate Professor, Konkuk University